

도시주부의 자산관리태도 · 자산적정인지도에 따른 노후경제대책수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rban Housewives' Economic Preparation for their
Retirement Planning based on the Attitudes of their Personal Asset's
Management and Perception on it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계 선 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석 사 박 혜 성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Sun Ja, Kye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 : Hye Sung, Par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ome influential factors for urban housewives'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550 housewives in Seoul. The 453 data obtained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d Stepwise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win PC+.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attitudes of assets management and the perception of assets property according to the expectation for being supported in their old age and the controlable values. Second,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the old age of the urban housewives were through the attitudes of assets management, the perception on it and controlable value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urban housewives should have concerns on the economic preparation in advance.

I. 서론

우리 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1980년의 65.8세에서 1990년의 71.3세로 증가하였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97년 현재 전체 인구의 6%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7.1%, 2020년경에 이르면 14%를 넘어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통계청, 1999).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쇠, 심리적 고립과 소외감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뿐 아니라 노년기의 많은 문제와 관련된 것이 경제력이다(이가옥 등, 1990).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가계는 은퇴로 인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 상실, 경제생활수준 하락으로 빈곤상태가 더욱 심화된다. 더욱이 노후에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심리적·문화적 수요 충족에 관심을 갖게 될 현재의 청장년층은 장기적 가계재무설계를 세워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가계재무관리의 한 영역으로 연구되어온 유산상속계획은 자녀세대의 부양 의식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노후경제대책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핵가족화, 상속법의 변화, 그리고 부모부양규범의 약화로 인해 유산상속에 대한 태도가 부모세대, 자녀세대 모두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나라는 보편적인 정년이 만 55세로 규정되어 있어 점점 연장되고 있는 노인의 평균수명(여자 74세, 남자 67세)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른 편이다. 또한 이 시기는 가족생활주기상 자녀 교육비·결혼 등으로 가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은퇴 전부터 은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이승아, 1998). 보다 안정된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기존의 자산이나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재취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 보다 적극적인 노후준비행동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후경제대책에 관한 연구들은 노후대비 실태 파악, 경제적 노후대비 수준 및 그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 연구와 가정자산관리의 체계적 접근법에 기초한 분석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후경제대책의 범위를 확장시켜 재취업을 통한 노후경제소득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부들의 적극적인 대비행동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노후경제대책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자녀에 대한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지식과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후경제대책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유산상속에 대한 이해와 유산상속의 범위,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행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노후경제대책수행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노후를 맞이하게 될 주부들이 IMF이후 급격한 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용하고 독립적인 노후 경제생활유지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후경제대책수행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

산업화 이후 우리 나라 사회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노인인구 증가이다. 1950년대 중반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이들은 2010년대가 되면 노년기에 들어선다. 노인인구 증가는 사회의 부양부담 및 생산성 감소 등과 같은 노인문제의 원인이 되지만 특히 개인차원에서 노후의 경제적 빈곤문제, 노년기 건강문제 등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야기된다(김성숙·박운아, 1992). "노인문제"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경제적 빈곤문제는 다른 노인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며, 모든 면에서 노인의 생활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앞으로 노인이 될 30-50대 주부들은 은퇴기 연장, 자녀와의 분가추세, 높은 수준의 사회심리적 욕구 및 문화적 수요 충족에 대한 관심 증가로 보다 많은 노후자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후경제대책에 관한 연구는 노후생활의 제 측면에 대한 준비의식·태도 및 대책을 파악한 것과 노후 경제력 확보를 위한 방안과 실태를 분석한 것 등이 있다. 김경숙(1981), 배계희(1988), 배옥현

(1989) 등은 40-55세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신체적 · 정서적 ·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정도를 점수화하고 준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혔다. 임정빈 · 손선경(1985)의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 신체적인 면에 대한 태도, 경제적인 노후생활대책의 수립상황 및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등에 관한 지역간 차이를 파악했다.

김성숙 · 박운아(1992)의 도시 중년기가계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자원이 많고, 연령이 적으며, 목표수준이 높고, 내적 가치를 지닐수록 노후준비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김은정(1993)은 중년기 가계가 노후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재정계획을 하고 또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재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노후준비에 대한 목표설정과 표준설정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노후준비를 위한 실제 자원평가와 정보수집 정도는 낮았다. 또한 총소득에 대한 노후대비 저축액의 비율도 대체로 낮았으며, 노후를 대비한 실제 수행정도는 남편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연금에 접근가능 할수록 유의미하게 높았다. 중년기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통제론적 성향, 부모의 노후는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존성향은 노후대비 재정계획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중년기 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 수준과 주관적 만족도를 연구한 신하연(1998)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높고 노후부양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공적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수록 월저축액 중 노후용 비율이 높았다. 순자산 중 노후용 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순자산액과 건강상태였다. 그리고 중년기 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막연히 필요하다는 인식만을 하고 있으며,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열망하지만 중년기의 높은 재정적 요구로 인해 현실적으로 여유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기춘 등(1998)은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을 달성하며, 생애소비만족을 극대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무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재무설계를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 자산 · 재무자원을 증대시키고 보전하여 개인과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 가는 전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재무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생애에 걸친 재무설계, 수입과 지출 관리, 소득과 자산 보호, 자산 증대, 노후설계와 상속을 재무관리의 주요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배희선 · 최현자(1996)는 재무관리행동을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노후준비행동으로 구성하였다. 노후와 관련한 재무관리(문숙재 · 김순미, 1997)에 관한 연구에서는 노인가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의 영위, 그리고 노인가계에 나타날 수 있는 재정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후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준비, 즉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문숙재 · 김순미(1997)는 은퇴 전 가계의 재정상태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파악하고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노후경제대책수행과 관련하여 재무관리에 관한 연구는 재무계획 및 재무상담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은퇴계획의 필요성, 은퇴 전 계획과 은퇴 후 계획, 은퇴자금의 결정요인(Mittra, 1993; Crowe & Hughes, 1994; Kapoor, Dlabay & Hughes, 1996; Yuh & DeVaney, 1996)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 노인의 재정적 자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재무계획 및 은퇴계획도 개인 및 국민 전체를 위한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점차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각 가계의 자녀에 대한 유산상속은 범위와 규모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부모세대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대학교육비 및 결혼 · 주택비용 등에 대한 과다한 투자로 인해 노후경제대책에 소홀하다. 과거에 유산상속은 노후의 경제적 의존수

단이 되었으나 자녀세대의 부양의식 변화, 즉 부모로부터 일정한 자산을 상속받겠다고 해서 반드시 노후부양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자녀세대의 부양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은퇴 후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노후부양을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최근에 조사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이가옥, 1994)에서 나타난 노인들의 최종적인 재산 양도 시기를 보면, 자녀에게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을 이미 물려 준 노인의 비율은 13.6%, 일부재산만 물려준 비율은 5.5%인 반면, 사후에 물려주겠다는 노인들은 전체의 48.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지금까지 유산상속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유산상속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나 부의 축적 혹은 사회적 이동도에 미치는 효과와 같은 거시적인 측면이 분석 대상이었다. 국내에서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수의 실태조사(이동훈, 1980; 김종호, 1985)만 있었을 뿐이며, 가족학 분야의 상속의식에 관한 조사(신화용·조병은·Walker, 1997; 문영소·김양희, 1999)와 가계재무 분야의 미국 은퇴노인 가계의 이전여부와 이전액을 분석한 홍공숙·김순미·김연정(1996)의 연구, 노후재무관리와 관련하여 유산상속에 대한 계획이 요구됨을 제시(문숙재·김순미 1997)하였다. 특히, 가계재무관리 영역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자원 사용행동에 초점을 두어 저축·신용·보험·회계관리행동 및 은퇴행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녀에 대한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적은 편이다. 노부모 및 자녀세대의 핵가족화, 상속법의 변화 그리고 부모부양규범의 약화로 인해 부모부양에 관한 의식 및 상속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는 노부모세대 및 성인자녀세대 모두 변화하고 있다(신화용·조병은·Walker, 1995).

한편 우리 나라 기업의 90% 이상이 60세 이하 정년제(55세 이하 65.8%)를 채택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0세이다. 이에 비하여 현행 정년연령은 55세 전후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 후의 소득

보장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1989)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은 전체 노인인구의 28.8%에 불과하였으나, 백종식(1991)의 연구에서 「본인/배우자의 용돈 때문에」(56.9%),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22.0%),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12.7%) 등의 이유로 전체 노인인구의 60% 이상이 취업을 원하고 있었다. 현재 70-80대 노인은 교육수준이 낮아 퇴직 후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는 교육수준이 높고 스스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려는 의식이 높기 때문에 재취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에는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재산소득, 연금 혹은 저축 등이 노후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생애주기가설에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은퇴기에는 이전에 모은 자산을 소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정년퇴직 연령의 연장,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 노령연금제 확대 실시 등과 같은 노인 문제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안들은 사회의 기타영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책과 보조를 맞추어서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박재간, 1985). 또한 노령연금제도와 같은 하나의 해결방안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저생활만을 보장할 뿐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년연령이 낮고 노인의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생활주기의 처음 단계에서부터 노후를 대비한 경제대책을 수립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보다 다양하고 독립적인 소득원을 확보가 요구된다.

2. 자산관리태도와 자산적정인지도

1) 자산관리태도의 개념 및 선행연구

자산관리는 가계의 모든 자원 획득과 사용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지만 특히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결정을 통해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자산관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하는 경제적 행동으로서, 저축과 투자를 통해 가

계 소득을 현재 시점에서 모두 소비하지 않고 미래의 보다 나은 소비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다. 문숙재(1985)의 연구결과 도시주부의 저축행동은 저축의 필요성, 소비생활태도, 미래에 대한 전망 등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즉 자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관심과 자산관리행동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자산관리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산관리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 또한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되며, 어떠한 위험을 고려해야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는 자산관리에 관한 기초지식과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때문에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축행동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이며(송영주, 1981; 정영숙, 1983; 백설희, 1984) 구체적인 가계관리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가계관리행동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혜임·한산순, 1986; 고보선·이영호·임정빈, 199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산관리태도는 자산관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저축과 투자를 가계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하며, 계획에 따라 실행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노후경제대책수행은 단기에 완성되기 어려운 목표이므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행동이 요구된다. 더욱이 IMF경제체제 이후 많은 가계는 그들이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산 가치가 변화되거나 자산의 양적인 면에서 큰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부들의 합리적인 자산관리태도가 요구되며,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후경제대책수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가계의 모든 관리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부의 가치의식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자산관리에 대한 주부의 가치의식 즉 자산관리태도가 노후경제대책수행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2) 자산적정인지도의 개념 및 선행연구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에 의하면 개인의 일반적인 복지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실제 양 보다 자원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rumpel(1973)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경제적 만족은 소득이나 직업 등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고 개인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가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자산적정인지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Hafstrom과 Dunsing(1973)의 연구에서도 자산적정인지도가 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Sumarwan과 Hira(1987)의 연구에서는 소득적정인지도가 재정상태만족에 있어 강력한 예측인자였다. 자산적정인지도는 가정의 재정문제나 생활의 질과 관련이 깊다. 현재 보유한 자산에 대해 적절하게 인지하는 가계관리자는 노후경제대책수행을 위해 자산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IMF경제체제 이후 많은 가계가 소득이 감소하였고 물가상승이나 금리하락으로 소득효과가 줄었다. 따라서 가계관리자의 자산적정인지도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노후를 대비한 경제대책과 관련된 수행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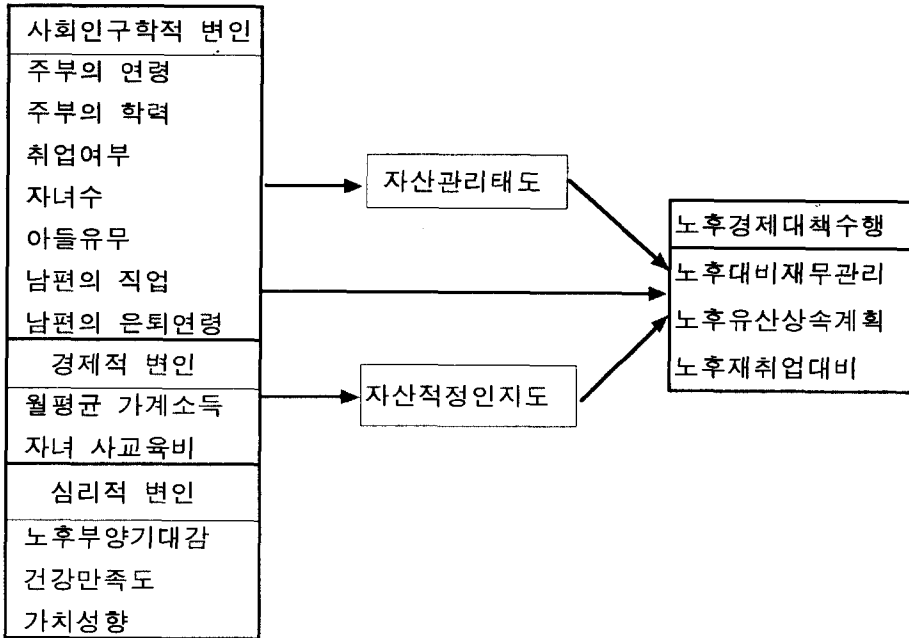
【연구문제1】주부의 자산관리태도와 자산적정인지도, 노후경제대책수행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주부의 배경변인은 주부의 자산관리태도와 자산적정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주부의 배경변인, 자산관리태도 및 자산적정인지도는 노후경제대책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3. 조사도구와 측정방법

1)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주부의 노후경제대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주부의 연령, 교육 수준, 취업유무, 남편의 직업, 남편의 은퇴연령, 자녀 수, 아들유무 등의 7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경제적 변인은 김은정(1993), 이행숙(1996), 김정희(1998) 등의 연구를 기초로 월평균 가계소득과 자녀 사교육비의 2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심리적 변인으로는 가치성향과 건강만족도, 노후 부양기대감의 3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가치성향 척도는 김은정(1993), 김나연(1996), 김정희(1998), Strumpel(1973), McKenna(1985) 등의 척도로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8개 문항으로 각각 5점 likert척도를 적용하였고, 점수가 낮을수록 운명론적 가치성

향이 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론적 가치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건강만족도는 지연경·조병은(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건강상태에 대한 단일 문항척도로 각각 5점 likert척도이며, 응답가능한 점수분포는 1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노후부양기대감 척도는 김은정(1993), 신하연(1997) 등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노후부양기대 수준과 관련하여 정부지원형, 자녀협조형, 본인부담형으로 구분하였다.

2) 자산관리태도·자산적정인지도

자산관리태도 6문항(1-6번), 자산적정인지도 6문항(7-12번) 등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는 5점 likert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자산관리태도와 자산적정인지도의 점수범위는 6-30점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주부의 자산관리태도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이며, 자산적정인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노후경제대책수행

노후경제대책수행 척도는 노후대비재무관리 6문항, 노후유산상속계획 4문항, 노후재취업대비 5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노후경제대책수행은 '정말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는 5점 likert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대비재무관리가 계획적이고, 유산상속에 대한 계획행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후재취업에 대한 대비행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999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 사이에 서울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1999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60세 미만의 주부 55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483부의 설문지 중 부실 기재이거나 연구에 부적합한 30부를 제외한 총 453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에는 SPSS win/PC+를 이용하여 빈도·백분율·평균·표준편차·Pearson의 적률상관관계·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N=453)

배경변인	구 분	빈 도	배경변인	구 분	빈 도
주부의 연령	30-39세	159(35.1)	자녀수	2명 이하	108(23.8)
	40-49세	213(47.0)		3명	270(59.6)
	50-59세	81(17.9)		4명 이상	73(16.1)
주부의 학 력	고졸이하	177(39.2)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146(32.5)
	대졸	230(50.8)		200-300만원미만	164(36.5)
	대학원졸	46(10.0)		300만원 이상	139(19.4)
주부의 취업여부	비취업	282(62.3)	자녀 사교육비	30만원 미만	177(39.4)
	취업	171(37.7)		30-50만원 미만	135(30.1)
				50만원 이상	137(30.5)
남편의 직 업	판매기술직	140(32.5)	건강 만족도	상	253(56.0)
	사무직	93(21.6)		중	174(38.5)
	관리전문직	198(45.9)		하	25(5.5)
남편의 은퇴연령	59세 이하	110(30.6)	노후부양 기대감	정부지원형	39(8.6)
	60-64세이하	145(40.2)		자녀협조형	143(31.6)
	65세 이상	105(29.2)		본인부담형	271(59.8)
아들 유무	없음	130(28.8)			
	있음	321(71.2)			

※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2)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성향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성향은 <표 2>와 같다.

<표 2> 심리적 변인의 일반적 경향(5점 만점)

변 인	평균	표준편차
윤명론적 가치성향	2.89	.58
통제론적 가치성향	3.59	.65

2. 주부의 자산관리태도와 자산적정인지도 및 노후경제대책수행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변인별 일반적 경향(5점 만점)

변 인	평균	표준편차
자산관리태도	2.83	.60
자산적정인지도	3.20	.91
노후대비재무관리	3.09	.82
노후유산상속계획	3.36	.82
노후재취업대비	4.18	.80
전 체	3.46	.61

1) 자산관리태도와 자산적정인지도

자산관리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값 2.83점으로 평균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 주부들은 비교적 자산관리에 대해 계획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산관리태도가 적극적이고 계획적일수록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노후경제대책수행이 이루어졌다. 자산적정인지도의 평균값은 5점 만점에 3.18점으로 중간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 전반적으로 자산적정인지도 수준이 높았다. 자산적정인지도는 현재의 가계재정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여 미래의 재정적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노후경제대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노후경제대책수행

노후대비재무관리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09점으로,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노후대비재무관리는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30·40대 주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노후생활자금마련과 관련된 저축·투자정보에 대한 실제적 행동수준이 낮았다.

노후유산상속계획에 관한 대비행동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6점으로, 재산상속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행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재산상속 순위를 결정하는데 대상선정의 기준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이 재산을 물려주겠다」(55.0%), 「노후에 부양해 주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15.9%), 「재산의 일부를 사회 공공단체 및 복지기관에 기부하겠다」(12.4%), 「장남에게 우선적으로 재산을 물려주겠다」(6.4%)의 순이었다.

노후재취업대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18로 노후경제대책수행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인 30·40대 주부들은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이며 교육수준이 높고 스스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려는 의식이 높다. 따라서 노후의 소득원 확보를 위한 재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주부의 자산관리태도와 자산적정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주부의 자산관리태도와 자산적정인지도에 대한 배경변인군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4>, <표 5>와 같다. 자산관리태도의 경우(<표 4>참조) 남편이 관리 전문적이고($\beta = .12$), 노후자립형일수록($\beta = .13$), 통제론적 가치성향을 가진 주부일수록($\beta = .35$) 자산관리태도가 계획적이다. 연구결과 자산관리태도에는 주부의 가치성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가치는 선택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상황 인지와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인지하고 순서를 정하는데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Paolucci 등, 1977). 자산관리는 가족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자원을 사용하는 합목적적 활동이며,

〈표 4〉 자산관리태도에 대한 독립변인군의 위계적 회귀분석

배경변인		자산관리태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주부의 연령	-.01	-.06	-.01	-.07	7.372453E-04	.01
	교육수준	.01	.01	-.01	-.01	.02	.02
	취업여부(취업)	-.01	-.01	.01	.01	.02	.02
	자녀수	-.01	-.01	-.02	-.02	-.01	-.01
	아들유무(유)	.05	.04	-.03	-.06	.07	.06
	남편직업(전문직)	.08	.12*	.09	.12*	.09	.12*
	남편은퇴연령	.01	.02	.01	.02	.01	.02
경제적 변인	월평균 가계소득			-.01	-.02	-.03	-.08
	자녀 사교육비			-.03	-.06	.01	.02
심리적 변인	건강만족도					-.06	.08
	노후부양기대감					.11	.13*
	통제론적 가치성향					.38	.35***
	운명론적 가치성향					-.09	-.10
상수		4.12		4.38		2.41	
F값		.89		.80		5.50***	
R ²		.02		.03		.18	
R ² 증가량				.01		.15	
Durbin-Watson계수		2.00		2.00		1.98	

※ * P < .05 ** P < .01 *** P < .001

가계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임정빈 외 4인, 1994). 따라서 노후를 대비한 자산관리과정에 있어서도 우선 주부의 가치를 명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IMF와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가계의 경제상황이 불안정하게 되므로 주부의 계획적인 자산관리태도가 중요하다. 각 독립변인군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한 1단계 설명력은 2%였고 마지막 3단계에서 심리적 변인을 추가한 결과 설명력이 18%로 15%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주부의 자산적정인지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녀수가 적을수록($\beta = -.12$), 남편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일 경우($\beta = .19$),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beta = .50$) 자산적정인지도가 높았다. 반면 건강만족도가 높고($\beta = -.13$), 취업주부의 경우($\beta = -.09$)

에 오히려 자산적정인지도가 낮았다. 취업주부 전체 중에서 60.3%가 단순노무직, 판매기술직과 같이 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 자산적정인지도는 낮았다. 특히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산적정인지도가 높은 것은 자녀의 초등교육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교육비 지출이 가계소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1998년 IMF경제체제의 상황에서 가계지출은 35.7%가 줄었으나 자녀의 과외비 지출(5.3%)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현대경제연구소, 1998). 현재 우리 나라 가계에서는 자녀의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 가계의 교육비지출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자녀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들은 지금까지의 교육관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입시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정책 부서에서도 학교교육에서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학

〈표 5〉 자산적정인지도에 대한 독립변인군의 위계적 회귀분석

배경변인		자산적정인지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주부의 연령	-.01	-.01	-.01	-.03	.01	.02
	교육수준	.25	.14*	.07	.04	.09	.05
	취업여부(취업)	-.14	-.08	-.21	-.11*	-.16	-.09*
	자녀수	-.16	-.12*	-.14	-.11*	-.15	-.12**
	아들유무(유)	.08	.04	.10	.10	.06	.03
	남편직업(전문직)	.20	.19***	.20	.19***	.20	.19***
	남편은퇴연령	-.01	-.03	-.01	-.05	-.01	-.04
경제적 변인	월평균 가계소득			.30	.52***	.28	.50***
	자녀 사교육비			-.01	-.01	-.01	-.01
심리적 변인	건강만족도					-.16	-.13**
	노후부양기대감					.07	.05
	통제론적 가치성향					.08	.05
	운명론적 가치성향					.01	.01
상수		2.73		2.76		2.22	
F값		4.99***		16.53***		12.82***	
R ²		.10		.31		.34	
R ² 증가량				.21		.03	
Durbin-Watson계수		1.84		1.98		1.94	

※ * P < .05 ** P < .01 *** P < .001

등을 강화하고, 정부의 국고 보조 등을 통해 양질의 학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편의 직업은 주부의 자산적정인지도에 매우 높은 영향력(P < .001)을 보였다. 즉 남편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일 경우 자산적정인지도가 높았는데 직종에 따라 소득 정도가 달라지는 폭이 크기 때문이다. 즉 관리전문직의 경우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수준 역시 높기 때문이다.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직일 때 주관적 재정복지가 높다는 김연정·김순미(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제조업·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IMF이후 임금감소 폭이 크고 고용상태 또한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산적정인지도가 낮았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적정인지도 역시 높았는데 가정의 현실적인 수입정도가 주부의 자산적정인지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노후경제대책수행을 포함한 가족원의 다

양한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가계소득이 경제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연구(Dollar, Davis & Helmick, 1985; Titus, 1988; Sumarwan & Hira, 1992)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연구(이정우, 1980; 박현미, 1986; 임정, 1988; 이정숙, 1989; 조미환·임정민, 1991; 최동숙, 1991; 김경숙·이정우, 1993; 이종혜, 1993; 이선형, 1995)에서도 확인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10%, 경제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2단계의 설명력은 21%가 증가된 31%로, 최종적인 설명력은 34%였으며, 자산적정인지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월평균 가계소득이었다.

4. 배경변인, 주부의 자산관리태도 및 자산적정인지도가 노후경제대책수행에 미치는 영향

배경변인과 자산관리태도 및 자산적정인지도를 독립변인으로, 노후대비재무관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참조),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beta = .14$), 남편의 은퇴연령이 낮을수록($\beta = -.10$),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beta = .23$), 통제론적 가치성향이 높을수록($\beta = .25$), 자산관리태도가 계획적일수록($\beta = .25$), 자산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beta = .42$) 노후를 대비한 재무관리행동이 잘 이루어졌다. 노후대비재무관리가 남편의 직업에 영향을 받는 것은 관리전문직이나 사무직이 직업특성상 생산

판매직에 비해 재정자원과 관련된 경제적 사정이 좋기 때문이다. 또한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노후대비재무관리에 적극적이었다. 가계의 소득정도가 중(中)·상(上) 계층인 경우 경제적 안정과 여유를 가지고 가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주부의 노후대비재무관리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인은 자산관리태도, 주부의 연령, 통제론적 가치성향, 남편의 정년시기 순이었으며, 투입된 모든 변인들의 설명력은 31%였다. 주부의 노후대비재무관리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인은 자산관리태도였다. 자산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

〈표 6〉 노후대비재무관리에 대한 독립변인군의 위계적 회귀분석

배경변인		노후대비재무관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β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주부의 연령	.02	.12	.02	.13*	.03	.16**	.03	.14**
	교육수준	.17	.10	.09	.06	.12	.18	.08	.05
	취업여부(취업)	-.07	-.04	-.09	-.06	-.08	-.05	-.03	-.02
	자녀수	-.12	-.10	-.11	-.10	-.11	-.10	-.06	-.06
	아들유무(유)	-.03	-.02	-.01	-.01	-.05	-.03	-.10	-.06
	남편직업(전문직)	.06	.06*	-.01	-.02	-.03	-.03	-.06	-.99
	남편은퇴연령	-.02	-.12*	-.02	-.13**	-.02	-.11*	-.02	-.10*
경제적 변인	월평균 가계소득			.12	.25***	.12	.23***	.12	.23***
	자녀 사교육비			.03	.04	.04	.06	.04	.05
심리적 변인	건강만족도					-.04	-.04	.05	.05
	노후부양기대감					.01	.01	-.07	-.06
	통제론적 가치성향					.34	.23***	.18	.13*
	운명론적 가치성향					.09	.07	.11	.09
자산관리태도								.34	
자산적정인지도								.36	.25*** .42***
상수		3.26		3.04		1.21		-.31	
F값		2.51**		4.00***		4.47***		9.49***	
R ²		.05		.10		.16		.31	
R ² 증가량				.05		.06		.15	
Durbin-Watson계수		2.12		2.13		2.11		2.04	

* * P< .05 ** P< .01 *** P< .001

지하고, 어떻게 관리·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대비 재무관리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IMF체제 이후 경제회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금리인하정책, 정부 및 기업에서의 봉급생활자의 감봉정책, 경제활동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가계의 효율적인 재무관리가 절실한 시기이다. 특히 가족생활 주기단계가 증가할수록 생활규모가 커지고 자녀 교육비 및 결혼비용 등으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무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가족생활주기 초기부터 노후경제대책과 관련된 장기적인 재무계획과 경제상황여건을 고려한 주부의 융통성 있는 재무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표 7>에 의하면 노후유산상속계획에 대한 배경변인군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취업주부일 경우 ($\beta = .11$), 남편의 직업이 판매기술직일 경우($\beta = -.13$), 남편의 은퇴연령이 낮을수록($\beta = -.15$), 주부의 자산관리태도가 계획적일수록($\beta = .22$) 노후유산상속에 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가계 자산 및 자산소득이 증가할수록 유산상속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홍공숙·김순미·김연정, 1995)결과를 볼 때, 주부가 취업한 경우 가계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유산상속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표 7> 노후유산상속계획에 대한 독립변인군의 위계적 회귀분석

배경변인		노후유산상속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β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주부의 연령	.02	.08	.02	.10	.02	.10	.02	.10
	교육수준	.01	.01	.06	.04	.09	.05	.08	.05
	취업여부(취업)	.19	.11*	.19	.11*	.20	.12*	.19	.11*
	자녀수	.02	.02	.03	.03	.03	.02	.03	.03
	아들유무(유)	.09	.05	.09	.05	.06	.04	.04	.02
	남편직업(전문직)	-.15	-.15**	-.09	-.09	-.11	-.11	-.13	-.13*
	남편은퇴연령	-.03	-.16**	-.03	-.15**	-.03	-.14**	-.03	-.15***
경제적 변인	월평균 가계소득			-.08	-.15**	-.08	-.15**	-.07	-.13
	자녀 사교육비			.46	.07	.07	.10	.07	.10
심리적 변인	건강만족도					.08	.07	.11	.10
	노후부양기대감					.01	.01	-.03	-.02
	통제론적 가치성향					.24	.16**	.12	.08
	운명론적 가치성향					.19	.07	.09	.07
자산관리태도								.30	.22***
자산적정인지도								.01	.01
상수		3.75		3.39		1.90		1.18	
F값		3.72***		4.02***		3.60***		4.00***	
R ²		.08		.10		.13		.16	
R ² 증가량				.02		.03		.03	
Durbin-Watson계수		2.03		2.07		2.10		2.12	

※ * P< .05 ** P< .01 *** P< .001

경우 오히려 유산상속에 대한 계획행동수준이 낮았다. 직업은 개인이나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대리변수로서,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과 총자산이 증가하므로 자녀에게 남길 유산상속 가능성이 높아진다(Menchik & David, 1983). 따라서 상속시기와 상속범위 결정, 상속법에 관한 정보수집 등에 합리적인 계획행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남편이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우 오히려 유산상속에 관해 합리적인 계획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주부의 유산상속계획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인은 자산관리태도, 남편의 은퇴연령, 남편의 직업, 주부의 취업여부의 순이었으며, 투입된

모든 변인의 설명력은 16%였다.

〈표 8〉에 의하면 노후재취업대비에 대한 배경변인군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beta = .19$),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eta = .18$), 통제론적 가치성향의 경우($\beta = .13$), 자산관리태도가 계획적일수록($\beta = .13$), 자산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beta = .19$) 노후재취업대비가 잘 이루어졌다. 주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후재취업대비행동이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남편의 은퇴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재취업의 필요성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다양한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고, 새로운 직업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

〈표 8〉 노후재취업대비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배경변인		노후재취업대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β	B	β	B	β	B	β
사회인 구학적 변인	주부의 연령	.03	.21***	.04	.21***	.03	.09***	.03	.19***
	교육수준	.32	.20***	.31	.19***	.32	.20***	.30	.18***
	취업여부(취업)	-.10	-.06	-.11	-.07	-.12	-.07	-.09	-.06
	자녀수	-.10	-.09	-.10	-.09	-.11	-.09	-.08	-.07
	아들유무(유)	.12	.07	.12	.07	.08	.04	.05	.03
	남편직업(전문직)	-.07	-.07	-.08	-.08	-.08	-.09	-.09	-.10
	남편은퇴연령	-.01	-.03	-.01	-.03	-.01	-.02	-.01	-.02
경제적 변인	월평균 가계소득			.03	.05	.04	-.07	-.02	-.03
	자녀 사교육비			.02	.02	5.57864E-04	8.8477E-04	-.01	-.01
심리적 변인	건강만족도					.02	.02	.06	.06
	노후부양기대감					-.07	-.06	-.10	-.08
	통제론적 가치성향					.18	.15**	.19	.15**
	운명론적 가치성향					-.05	-.04	-.13	-.19
자산관리태도								.17	.13*
자산적정인지도								.17	.19*
상수			.68		.56		.59		-.18
F값			4.06***		3.29***		3.10***		3.59***
R ²			.08		.09		.11		.15
R ² 증가량					.01		.02		.04
Durbin-Watson계수			2.03		2.02		2.03		2.04

* * P < .05 ** P < .01 *** P < .001

취업에 대한 실제준비행동이 적극적이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주부의 재취업대비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인은 주부의 연령, 자산적정인지도, 주부의 교육수준, 통제론적 가치성향, 자산관리태도 순이었으며, 투입된 모든 변인의 설명력은 15%였다.

주부들의 노후경제대책수행에 대한 배경변인군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beta = .19$),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eta = .12$), 남편의 직업이 판매기술직인 경우($\beta = -.13$), 남편의 은퇴연령이 낮을수록($\beta = -.12$), 통제론적 가치성향을 지닐수록($\beta = .19$), 자산관리태도가 계획적일수록($\beta = .29$), 자산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beta = .28$) 노후경제대책을 잘 수행하였다. 독립변인군별 기여도

에 있어서는 매개변인인 자산관리태도와 자산적정인지도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심리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군의 순이었으며, 투입된 모든 변인들은 노후경제대책수행의 전체 변량 중 22%를 설명하고 있다.

주부의 자산관리태도와 자산적정인지도는 노후경제대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후경제대책수행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한편, 통제론적 가치성향은 자산관리태도, 노후대비제무관리, 노후재취업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었다.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노후를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산관리태도가 합리적이며 노후경제대책수행에 적극적이었다.

<표 9> 노후경제대책수행에 대한 독립변인군의 위계적 회귀분석

배경변인		노후경제대책수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β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주부의 연령	.02	.17**	.02	.18**	.03	.19***	.03	.19***
	교육수준	.16	.13*	.15	.12	.17	.13*	.15	.12*
	취업여부(취업)	.01	.01	-.01	-.01	-.01	-8.912E-04	.03	.02
	자녀수	-.07	-.05	-.06	-.06	-.06	-.07	-.03	-.03
	아들유무(유)	.05	.04	.06	.04	.02	.02	-.02	-.02
	남편직업(전문직)	-.05	-.06	-.06	-.18	-.07	-.10	-.09	-.13*
	남편은퇴연령	-.02	-.14**	-.02	-.14	-.02	-.12*	-.02	-.12*
경제적 변인	월평균 가계소득			.03	.07	.03	.07	-.02	-.04
	자녀 사교육비			.03	.07	.04	.09	.05	.09
심리적 변인	건강만족도					.01	.01	.07	.08
	노후부양기대감					-.01	-.01	-.06	-.06
	통제론적 가치성향					.08	.08	.21	.19***
	운명론적 가치성향					.11	.11	.12	.12
자산관리태도								.29	.29***
자산적정인지도								.19	.28***
상수		2.72		2.46		1.20		.05	
F값		2.85**		2.43**		2.77**		5.53***	
R ²		.06		.07		.11		.22	
R ² 증가량				.01		.04		.11	
Durbin-Watson계수		2.06		2.05		2.08		2.09	

*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노후경제대책수행에 적극적이었다. 55-59세의 연령층이 노후준비를 가장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계선자(1988), 서전(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노후를 대비한 구체적인 재무관리계획 수립, 유산상속의 시기와 규모에 대한 구상, 은퇴 후 소득 확보를 위한 재취업 관한 장기적인 가계설계는 미흡하다. 그리고 남편의 은퇴시기가 가까워지고, 은퇴 후 노후생활이 당면과제로 생각되는 5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앞으로 노후를 맞이하게 될 30·40대 주부들에게 노후대비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무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노후경제대책수행이 전(全)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소비지출이며 가족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사회심리적 요인인 통제론적 가치성향, 자산관리태도·자산적정인지도가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주부의 자산관리태도·자산적정인지도와 노후경제대책수행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 주부의 합리적인 자산관리측면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도 비교적 적절하게 인지하였다. 또한 길어진 노후에 대해 경제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할 뿐 아니라 실제 노후경제대책수행과 관련한 정보수집과 대책마련에 적극적이었다.

둘째, 주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경제적 변인, 심리적 변인은 주부의 자산관리태도와 자산적정인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부의 통제론적 가치성향은 자산관리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특히 IMF경제체제 이후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재적응 과정에서 한 가정의 관리자인 주부들은 노후에 대한 독립적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한편 자산적정인지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은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가계의 재정상태가 노후경제대책수행에 결정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대상 주부의 노후경제대책수행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양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식의 변화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 나라 각 가계에서의 유산상속은 노후의 경제적 의존수단이 되어왔다. 또한 유산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지 않아 예상치 못했던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왔다. 따라서 유산상속에 대한 부부간, 부모-자녀간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통해 유산상속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야 할 것이다. 노후재취업대비와 관련하여 앞으로 노후를 맞이하게 될 30·40대 주부들의 경우,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지고 여가활동이나 독립된 주거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이전 가족생활주기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소득원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재취업이 필수적임을 이해해야 한다.

넷째, 주부의 노후경제대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의 은퇴연령이 빠를수록 노후경제대책수행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가정생활 초기단계의 경우 노후경제대책수행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가계를 지원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나 경제적 보상책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미비하고 은퇴가 자녀의 대학교육과 결혼 등과 맞물려 많은 가계에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다. 따라서 은퇴 후 가계의 경제적 위기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 개개인이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후경제대책수행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에 대해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을 노후대책으로 여기는 의존성향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노후생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주부의 자산관리태도와 자산적정인지도가 노후경제대책수행에 주요한 영향변인임을 고려할 때, 주부의 합리적인 자산관리태도와 현

재 가계에서 보유한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와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IMF경제 체제 이후 물가상승이나 금리하락으로 소득효과가 훨씬 줄어든 현 상황에서 주부가 인지한 자산적정인지는 노후경제대책수행을 포함한 가계관리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부의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길어진 노후를 맞이하게 될 세대인 30-50세 주부들은 보다 합리적·장기적인 노후경제대책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노후대책을 전담하고 있는 주부에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계에서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자산을 평가하고 노후의 경제상황을 예측하여 구체적으로 노후생활설계를 할 수 있는 가계재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또한 가계재무설계사·소비자상담사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고, 가계의 경제적 능력과 특성에 따른 실질적이고 유용한 재테크 방법의 연구·보급에도 관심을 기울여 가계의 노후경제대책 수준을 증진시켜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계선자(1988), "기혼여성의 노후생활계획행동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 27권.
- 2) 김미경(1992), "중년층의 노후생활준비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성숙·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3(2).
- 4) 김순미·양정선(1994), "가계재무관리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2(5).
- 5) 김은정(1993),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계획 수행",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6) 김인숙(1992), "농가의 노후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7) 김정희(1998), "도시주부의 응집력·적응력에 따른 노후경제대책수행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학위논문.
- 8) 김종호(1985), "농촌가족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9) 문숙재·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 10) 문영소·김양희(1999), "한국가족의 재산상속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 11) 박재간(1985), "21세기 노인문제와 사적부양기능", 한국노년학 5권.
- 12)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13) 배선희·최현자(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준비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 14) 배희선(199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5) 서 전(1991), "중년기 가족의 노부모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16) 손선경(1985), "노후생활대책에 대한 성년층의 의식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17) 신하연(1997), "중년기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 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8) 신화용·조병은·Walker, A. J.(1997),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노부모부양과 재산상속의식: 한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 19) 윤성인·임정빈(1999),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 지출에 따른 재정문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 20) 이기춘·여정성(1996), "고령화 사회의 노년기 경제생활문제와 그 대책", 삼성소비자문화원주관 학술대회.
- 21) 이동훈(1980), "재산상속실태와 상속법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이명숙·이정우(1997), "도시 전업주부의 가치지향성·가정관리전략·가정관리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 23) 이승아(1998),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24) 이행숙(1996), "주부의 노후생활준비의식 · 행동 및 경제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25)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5), 노후생활에 관한 의식 및 준비실태조사, 16-81.
- 26) 정동호(1992), "대학생의 재산상속에 관한 의식 성향",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173-189.
- 27) 조정문(1990), "미국내 한국계 이민자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6월호).
- 28) 최성재(1992),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2(2).
- 29) 통계청(1999), 한국의 사회지표, 경제활동인구조사, 68.
- 30) 홍공숙 · 김순미 · 김연정(1995), "미국노인의 유산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 31) 홍영림(1997), 재산상속연구, 대우경제연구소 월간경제, 7월호.
- 32) Adler.A(1969), "Life Style: The Essence of Social Class" in W.D well(ed), *Life Style and Psychographics*, 38-47.
- 33) Atchley(1977), *Social Forces in Later Life*, California: Wads Worth Publishing Company, Inc, 234.
- 34) Fillenbaum, G.C.(1971), "Retirement Planning Programs at What Age and for Whom?" *The Gerontologist*, Vol.11.
- 35) Kilty, K.M & J.H. Behling(1986),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among Professional Workers", *The Gerontologist*, Vol.26.No.5, 525-530.
- 36) Mckenna, J.S(1985), "Planning for Retirement Security:A Study of Woman in the Middle Years" Dissertation of Oklahoma University, 109-113.
- 37) Mckenna, J.S. & Nichols, S.Y.(1986), "Retirement Planning Strategies for Midlife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78, No.4, 34-37.
- 38) Pitts, J.M(1986), *Planning for Tomorrow's Elderly*, Family Economics Review 4, 17-20.